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신청서에 나타난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요구 분석

이윤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1. 서론

◆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최초로 시작된 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는 시민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통한 공동체 건설과 참여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제도(하승우, 2006)로 국내에는 2011년 전국에 도입되었음.

◆ 2020년 기준 서울시 참여예산을 통해 신청된 공원녹지 관련사업은 전체 사업수의 12.7%, 전체 신청 금액의 27.7%(고하정, 2020)로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엿보임. 본 연구는 공원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일어나는 새로운 경로로서 참여예산제도에 모이는 제안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원 정책수립에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연구범위 : 2020년 1월~12월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에 올라온 공원분야 광역형 제안사업 총 437건

◆ 자료수집 및 분석 : 연구자가 직접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제안사업의 제목, 내용, 위치를 추출하여 Microsoft Excel 2021로 정리한 뒤 사업대상지 공원유형 비율을 분석하였고, 이후 Net-miner v4.4를 활용하여 신청서에 담긴 시민 제안의 내용을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였음.

3. 연구결과

1) 공원유형

제안사업 대상지 유형은 '근린공원' 40.2%, '한강공원' 16.4%, '도심거리/가로수' 15.9%, '도시자연공원' 11.5%, '공원일반'과 '마을/골목길'이 각각 6.2%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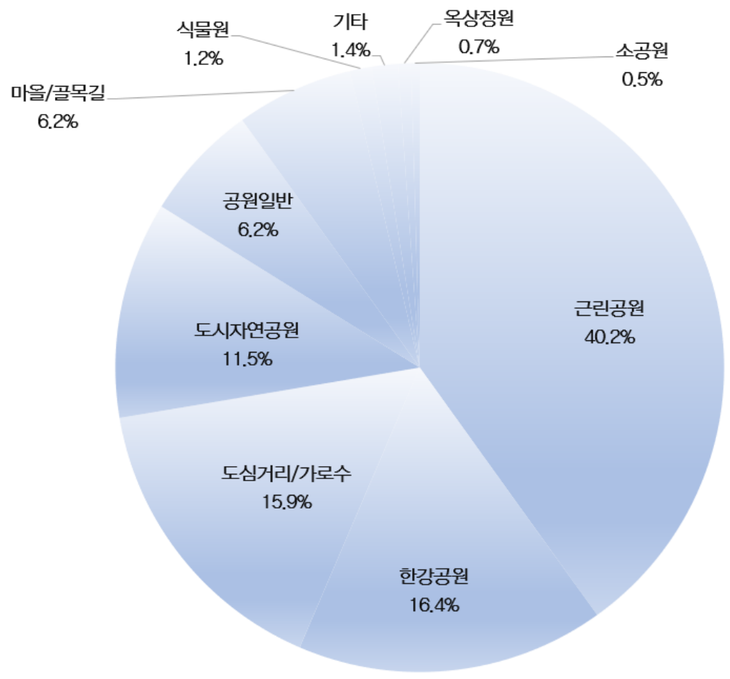


그림 1. 공원유형별 사업신청 비율

2) 사업내용 및 주제

공원분야 참여예산에 담긴 시민들의 요구는 7가지 주제로 구분되었음 ①Topic-1: 지역 자연 문화 활용 교육 및 정원 활동, ②Topic-2: 노약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린공원의 운동시설과 관리, ③Topic-3: 등산로, 둘레길, 무장애숲길 조성 및 가로수 관리, ④Topic-4: 한강시민공원 편의시설 확대(자전거도로, WIFI, LED조명 등), ⑤Topic-5: 반려동물, 책읽기, 놀이시설 등 공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 ⑥Topic-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변 녹지, 화단, 공터의 식재 개선, ⑦Topic-7: 근린공원의 어린이 숲체험과 공원 안전 등임. 사업수로는 'Topic-6' 91개, 'Topic-3' 90개, 'Topic-1', 'Topic-7' 각각 64개, 'Topic-4' 61개, 'Topic-2' 34개, 'Topic-5' 28개 사업이 분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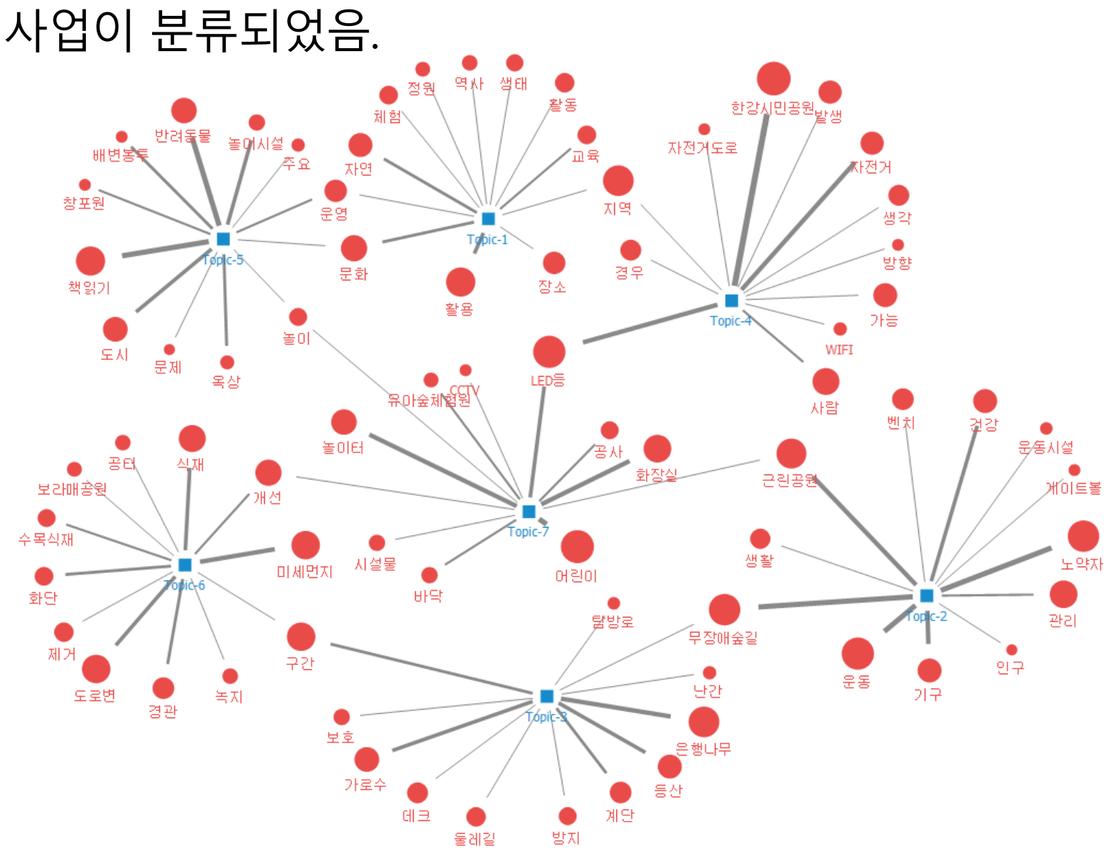


그림 2. 사업내용 토픽분석 결과

4. 결론

◆ 시민들은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생활권공원인 근린공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등산, 운동, 자연체험,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의 시설 개선, 도심 경관 및 대기질 향상을 위한 녹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향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이용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반면 시민 제안 중에는 민원성 제안도 다수를 차지하여, 향후 참여예산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참고문헌

고하정, 2020,『서울시 도시공원조성예산 변동 추세 –예산서를 중심으로』,『한국조경학회지』, 48(3), 1-11.
하승우, 2006,『참여예산제와 민주주의: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사례의 한국에 대한 경험적 함의』,『시민사회와 NGO』, 2(2), 113-134.